

# 환경윤리를 다루지 않는 기독교적 세계관은 장님이고 절름발이

## Christian worldview without environmental ethics is blind and lame

유정칠(경희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 I. 머리말

오늘날 인류는 총체적 환경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세계인구는 창조세계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세계 인구가 60억을 넘어선 지는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일부 미래학자들이 지구 수용력의 한계치라고 주장하는 200억이 되는 데에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보다 훨씬 더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 1세기 동안 개발도상국에서는 전체 삼림의 약 절반 가량이 사라졌고, 인도의 경우는 전체 삼림의 85%가 사라졌다. 또한 아프리카의 정글도 사막화의 초기단계인 초원으로 변해 가는 등 건조지대의 약 70%에서 사막화의 징후가 나타난다. 중남미에서도 열대 우림을 포함한 많은 삼림들이 가축 사육을 위한 초목지로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차례로 불태워졌다. 이러한 아프리카와 중남미 열대 우림의 파괴는 오늘날 지구 전체의 기후 변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사라지는 열대 우림과 삼림의 파괴로 많은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사라져 매년 2만5천~5만의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다(UNEP 1992).

지구의 온난화 문제도 늘어나는 인구문제와 맞물려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의 온난화에 대해선 최근 서구 사회가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은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구 온난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후협약을 포함한 각종 환경협약 등이 다시 처음부터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국의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환경규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다.

물 부족 문제도 날로 늘어나는 인구문제와 함께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국제적으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으며, 21세기에는 <물 기근 국가>로 전략될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세계 인구의 약 40%, 나라수로는 80여 개국이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20세기에 일어난 석유파동에 이어 앞으로 21세기의 국가간 분쟁은 물을 둘러싸고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역사적으로 보면 물을 둘러싼 국가간 분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67년 발생한 6일 전쟁은 시리아가 요르단강 상류의 물길을 차단 한데서 비롯되었다. 현재 이스라엘은 시리아에서 빼앗은 골란고원과 요르단강 서부 지역에서 물 공급의 83%를 의존하고 있다. 결국 이 지역의 영구적인 평화는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다.

오늘날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은데, 이는 현재의 창조세계보다 내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이 땅의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더라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연의 창조성 회복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생물과 자연은 인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시 50:12; 욥 41:11)).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과 자연환경의 관리자이다(창1:28).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과 충성이다(고전 4:2).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파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며 죄를 짓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가치관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날의 생태적 위기는 바로 세계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White Jr., 1967).

### II. 가치의 주관성

인간의 가치기준은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문화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다르며, 각 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개인이 성장해온 배경과 문화적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같은 대상물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도 국가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 야생동물들의 가장 주요한 서식지로 인정받는 습지(wetlands)에 대한 중요성 인식만 보더라도 각 국가 간, 지역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영국의 경우는 169개의 습지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분류하여, 국제 랍사협약(Ramsar Convention)에 가입하여 보호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5 곳을 넘지 않고 있다. 강원도 대암산

의 용늪이나 경남 창녕의 우포늪처럼 산업공단이나 농지로 변경하기 힘든 곳만이 지정되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서해안의 개펄지역의 대부분은 모두 영국에서 람사협약에 가입하여 보호하고 있는 지역들보다 더 국제적으로 중요한 야생조류의 서식지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지만 그 어느 곳도 국제 습지보호조약인 람사협약에 가입되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Yoo, 1999b). 오히려 새만금처럼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인해 많은 습지가 사라지고 있는 운명에 처해있다(Yoo, 1999a).

우리나라 내에서도 환경인식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다. 국내 자연환경보전법으로 보호하는 생태계 지역만 보더라도,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현재 6 곳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어느 한 곳도 자발적으로 자기 지역 내에 있는 주요 생태계 지역들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도 않고, 환경부에서 해당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해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서울시가 지정한 생태계보전지역 중 어느 곳도 서해안의 한강하구, 강화도, 남양만, 아산만, 천수만, 대호방조제나 강원도 철원 습지 등에 비하면, 생물들의 서식환경이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하지만, 서울시에서는 도시화로 파편화된 생태계 중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양호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결국 서울시에서 지정한 생태계보전지역의 생태적 가치가 다른 곳보다 더 좋아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기에 빌헬름 빈델반트(Windelband, 1921)는 '가치(value)란 대상물 그 자체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의해 주어지기 때문에, 만일 우리의 의지(will)와 감정(feeling)을 모두 제거해 버린다면 결코 이 세상에 가치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 말은 결국 우리 인간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를 아무리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하더라도 평가자가 사람인 이상 그 가치 기준은 항상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관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어떤 문화권에서 살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자연이나 생물들에 대해 가치를 매길 때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자라난 나라, 지역, 교육 정도, 종교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콜리코트(Callicott)는 '인간이 사물과 생물을 보거나 느끼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이 내리는 가치는 비록 인간중심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류기원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지도 모른다(Callicott, 1984, 1986).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기독교적 환경관, 자연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 III.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식과의 관계.

우리가 자연환경을 잘 보호하여야 하는 이유는 어떤 자연에서 사느냐에 따라 인간의 가치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고대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의 범람은 일정하지 않아 인명의 손실을 초래하여 메소포타미아인에게는 두려운 존재였지만, 나일강은 불어나는 시기가 매년 규칙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집트인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주는 풍년을 약속하는 범람이었다. 또 지형적으로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사방이 트여 있어 잦은 외침으로 인해 무인들이 도시국가의 왕조를 형성하였고 왕조의 변동도 잦고 즉흥적으로 통치된 반면, 이집트는 나일강과 주변 산들로 인해 외침이 적어 왕조의 수명이 길었고 정치는 일정한 법전에 따랐다(Mason, 1962). 이러한 자연환경의 차이는 두 지역 간의 신관(神觀)에도 영향을 주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자연이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을 겪은 신들이 힘으로 늙은 혼돈의 신들과 싸우는 것으로 이해한 반면, 이집트들은 신은 강력하지만 광폭하지는 않았다. 고대에는 자연에 대한 통제력 여부, 특히 치수와 농사의 성공 여부에 따라 왕조의 흥망성쇠가 좌우되기도 했는데, 강의 범람의 시기가 일정했던 이집트에서는 어느 정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으나,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기 위해 점성술 등이 발전하기도 하였다(Mason, 1962). 결국 어떤 자연환경에서 사는가 하는 것이 그 곳에 사는 사람들

의 자연관과 신관(神觀)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 황무지에 대한 견해도 나라와 시대에 따라 크게 다르다. 이스라엘에서는 광야(wilderness 또는 desert)를 황무한 곳(겔 6:14; 시 107:33,35), 들짐승이 많은 곳(막 1:13), 시험받는 곳(시 106:14) 등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서구유럽의 황무지는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곳으로 이해되고 있다. 황무지에는 비록 다양한 식물이 살고 있진 않고 인적이 드물지만 히스(heath)로 덮여 있어 적막의 미(美)를 보여주는 곳으로 시나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교통이 발달하고 인간이 살고 있지 않는 곳이 드문 오늘날, 자연스러움과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황무지는 더 이상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나 사탄이 있는 곳이 아니라, 생태관광의 자원을 제공하는 관광지로서 부상하고 있다.

각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정원(庭園)들은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에 대한 이해를 엿보게 한다. 프랑스식 정원(French garden)은 기하학적 대칭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정원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에 상관없이, 프랑스의 베르사이유 궁전과 고궁의 정원수와 같이 정교한 기하학적 감각을 가지고 전지(剪枝)되고 관리되고 있는 정원을 오늘날 프랑스식 정원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정원을 좋아하는 자들은 자연은 아름답지만 인간의 손에 의해 정리되고 가꾸지면 더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에 비해 영국식 정원(English garden)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리하는 정원이다. 그러므로 영국식 정원에는 덩굴과 관목 그리고 교목들이 일정한 기하학적 대칭이나 룰(rule) 없이 들어서 있다. 영국식 정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연은 있는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일본식 정원은 분재(盆栽)처럼 자연의 아름다움을 축소하여 정원에 배치하는 것이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큰 소나무나 강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다리 등을 정원에 축소시켜 전시하는 정원을 말한다. 일본식 정원은 사람의 손을 댄다는 점에서는 프랑스식 정원과 비슷하나 기하학적 대칭의 미보다는 자연의미를 더 중요시한다는 점에서는 프랑스식 정원과는 다르다. 마찬가지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점에서는 영국식 정원과 비슷하나, 인간의 손을 대어 식물이나 교각 등을 실물보다 훨씬 작게 만들어 전시한다는 점에서는 영국식 정원과는 다르다.

앞에서 언급한 것들은 자연과 인간은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서로 상호의존적인 관계이지만 오늘날 우리 인간은 일방적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위치에서 있다. 이로 인해 자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은 정립되어 있지도 않고 또 정립하려는 의지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은 결코 자연과 분리되어 살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 IV. 자연의 창조성 회복과 인간의 창조성 회복과의 관계성

「자연의 창조성 회복」과 「인간의 창조성 회복」은 별개의 것인가? 버클리 대학의 역사학자였던 린 화이트 2세(White Jr.)는 1967년 과학잡지 'Science'에 기고한 <우리가 당면한 생태학적 위기의 역사적 뿌리에 관한 글(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에서 "기독교는 인간과 자연의 이원론(dualism)을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자연을 착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많은 환경론자들은 그의 생각에 동조하였으며, 교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이 자연을 통치자로서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여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해 온 것이 기독교적 리더십이었기에 오늘날의 생태적 위기에 대해 기독교가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온 기독교인들의 잘못이다.

그 동안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은 인정하면서도, 창조세계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시는 부양자(sustainer)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자기 구원에 초점을 둔 신앙으로 인해 공동체의 구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연을 포함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창조세계의 관리, 감독의 책임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창조세계 속에 뛰어들어 당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은 없었다. 이것은 마치 칼 마르크스가 한 때 병든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소외」와 「자연의 소외」를 함께 해결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만, 「자본론」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의 소외」에 관한 문제에만 집착하고 「자연의 소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모습이다(유정철 2002). 어쩌면 그 당시 마르크스는 「인간의 소외」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을 지 모른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인간의 소외」나 「자연의 소외」 그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환경오염이 결코 그가 그토록 죄악시했던 서방 세계보다 덜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그리고 모든 자연을 기르시는 것에 대해 찬양하면서도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려는 의지는 부족하거나 거의 없다. 세상을 부양할 특권과 책임을 저버린 것이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무한한 성장을 믿고 싶어하며, 이를 위해 자연을 파괴시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창1:28) 이용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킨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연의 창조성 회복」은 「인간의 창조성 회복」과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반 다이크 등이 지적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작품(창조세계)을 분리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자일 수밖에 없다(Van Dyke et al., 1996). 「자연의 창조성 회복」과 분리된 「인간의 창조성 회복」은 기대할 수 없는 욕심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인간과 자연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다른 생물들은 그렇지 않다(창 1:27). 그리고 인간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도 받았다(창 1:28).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주저함 없이 멸종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다. 하나님을 단지 말씀으로만 이해하고, 자신이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창조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의 직분을 부여받은 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을 체험할 수 없다.

## V. 생물의 멸종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

왜 생물들이 멸종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가?

범신론적 자연관을 가진 자들 중에는 하나님이 자연 속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시며,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의 현현(incarnation)이기 때문에 보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자연은 하나님이 아니고 생물들은 언젠가는 사라지므로 더더욱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를 깨달을 수는 있지만,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자연 속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생물의 멸종에 대한 범신론적 자연관은 잘못이다.

생물의 멸종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성경은 “모든 생물들이 다음 세대로 유전(遺傳)되어야 하는”(창 7:2-3) 것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다. 성경은 인간이 필요에 따라 피조물들과 그들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동시에 그 피조물을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생물들은 왜 보호되어야 하나? 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기독교는 진화론보다 더 명료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진화는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멸종위기의 종이 분화되어 다른 종으로 대체될 수 있을 정도로 진화의 속도가 빠르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멸종위기 종에 대한 우려는 반감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일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진화론자인 노먼 레빈(Levin, 1989)은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구하려고 시간과 자원을 소비하는 것은 낭비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멸종은 진화의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진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류가 모두 레빈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구상의 생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대부분의 종이 멸종되고 말 것이다. 레빈의 말처럼 자연에서 많은 개체들이 인간의 간섭 없이도 태어나고 죽는다. 이러한 과정은 생태계를 안정

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죽거나 수명을 다해 죽은 개체의 자리를 메우는 새로운 개체의 출현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각 개체군이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한 적응도(fitness)를 높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유정철, 2002). 그러나 레빈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 수많은 종이 멸종되고 있는 과정은 과거와는 아주 다른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많은 동식물들은 자연의 변화와 질서에 의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간섭으로 강제된 인위적인 멸종으로서, 사라진 개체나 종을 대신할 어떤 개체나 종도 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유 1996a). 그러므로 생태학자들은 물론이고 의식 있는 진화론자들조차도 레빈의 주장에 반대한다.

자연과 환경의 파괴자로서의 인간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예는 어렵지 않게 현재 우리 주변의 숲 속에서, 그리고 지나온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유정철, 1996b). 시편 기자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 의 것이로다”라고 선포하였지만(시 24:1), 그 시편 기자가 알고 있던 세계의 일부였던 레바논의 삼나무(cedars)는 이미 멸종되었다(Van Dyke et al., 1996).

한 때 미국에서 가장 흔한 들새였던 나그네비둘기(passenger pigeon)도 인간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북미대륙에서 이미 멸종되는 등, 이제 인간은 야생동물들에게는 최대의 위협이 되고 있다(유정철, 1995).

전세계에 남아있는 3천여 마리의 코뿔소 가운데 1천여 마리가 서식하는 짐바브웨의 환경단체들은 1994년부터 코뿔소 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다른 동물들의 보호 운동에는 서식지의 복원 노력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현재 짐바브웨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뿔소 보호 운동의 초점은 밀렵꾼들 보다 먼저 코뿔소를 발견해 뿔을 잘라 주는 것이다(유정철, 2002). 이는 극동지역에선 민간 약재와 최음제로, 중동 지역에선 고급 단검용 손잡이로 수요가 높아 코뿔소 뿔을 구하러 밀렵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관광객들은 짐바브웨에서 정상적인 코뿔소를 가지고 있는 코뿔소는 보기 힘들게 될 것 같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최초로 다스렸던 아담은 각 생물의 특징과 그들의 생활사에 맞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나, 오늘날 우리 인간은 유감스럽게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종(種)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지도조차 모르고 있다. 창조세계의 관리자로서 자격 미달인 셈이다.

성경은 모든 동물들이 신이 부여한 생존권과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본질적 가치란 범신론에서 말하는 모든 종(species)에 영혼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각 종들은 창조된 순간 창조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부여된 가치가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각 생물들은 인간의 가치 기준에 상관없이 가치가 있다는 말이다. 각 생물들은 그것이 생태계에서 먹이사슬을 지탱케 하는 것이어서 가치가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생물들은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노아의 심판 때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만을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모든 생물들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창조세계의 일원이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遺傳)케 하라”(창 7:2-3)라고 명령하셨다. 부정한 짐승은 암수 둘씩 취하라고 한 반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취하라고 한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어떤 이는 나중에 제사를 위해 쓰거나(창 8: 20), 혹은 식량(창 9:3)으로 쓰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창세기 7장 2~3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이 그 씨를 온 지면에 남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는 것이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모든 동·식물들을 없애신 후 다시 말씀으로 간단히 그들을 창조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 노아의 가족들이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지키도록 하셨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노아의 가족들이 창조세계를 지키는 청지기의 직분을 스스로 깨닫기를 기대하셨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창조세계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신다”(히 1:3), 하지만 창조세계가 우리를 통해 잘 관리되길 바라고 계신다. 성경은 자연과 생물의 좋은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자연을 혹사시키지 않고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을 잘 관리하도록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육 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육 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 칠 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라”(레 25:2-4).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면 땅이 다시 기력을 회복하여 식물을 잘 키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안식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너무 자연을 착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은 만약 우리가 이 명령에 따라 자연을 관리한다면 땅이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어 우리가 배불리 먹고 자연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레 25:19). 이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범죄가 된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인간의 끝없는 욕심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육과 정신과 영을 가진 독특한 피조물인 반면, 다른 생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다가 멸종시켜도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비물질적인 것은 영적이라고 믿는 사상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딤후 1:11)고 말하고 있다. 모든 생물들이 다음 세대로 유전(遺傳)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이 창조세계의 일원으로 계속 남아있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노아의 홍수 사건 때에도 하나님은 적어도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의 암수 한 쌍씩은 창조세계에 살아 남아 다음 세대를 형성하도록 배려하셨다. 창조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은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인구수는 60억을 넘어섰지만 다른 피조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멸종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태적 위기에 대한 성경적 해석이 꼭 필요한 시점에서 있다(유정철, 1995). 왜냐하면 린 화이트가 주장했듯이 오늘날의 생태적 위기는 바로 세계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White Jr., 1967).

## VI. 우생학적 사고와 인류 미래의 위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다윈(Darwin)의 “종의 기원”은 1859년 11월 24일 출판되었다. 초판은 출판된 그 날로 매진이 되었다. 그 책이 출판된 첫날 매진된 것은 출근길의 많은 지식인들이 그 책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그 초판이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 책방 주인들이 그 책을 사재기했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23년 후인 1882년, 바로 다윈이 죽었던 그 해, 영국의 사회경제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허버트 스펜서 경(Sir Herbert Spencer)이 미국을 방문하였다. 그의 미국 입성은 마치 메시아(messiah)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처럼 각 신문에 대서특필되었고, 수 천 권의 그의 책은 순식간에 동이 나버렸다. 스펜서가 미국에서 그토록 환영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사상이 당시의 미국 사회의 가치관을 지지해주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스펜서는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이라는 용어를 다윈보다 먼저 사용했는데, 그의 이론은 특히 자수성가한 미국의 사업가와 지식인들에게 자신들이 누리는 부(富)와 명예가 자신들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 나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므로 당연하다는 논리를 정당화 시켜주는 것이었다. 스펜서의 ‘적자생존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부자가 부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그럴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가난한 자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게으르거나 무능력하기 때문이거나 그 두 가지 모두 때문이다”라는 논리였다. 그래서 그 당시 일부 지도층들 중에는 거지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은 사회에서 자연도태 되어야 할 개체를 유지시켜주는 것이므로 자연선택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은 분명 자연선택설(Natural selection)을 잘못 이해한 것이었지만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생존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에서는 오늘날도 흔히 볼 수 있는 사상이다. 이러한 사상의 밑바탕에는 우생학이 자리잡고 있다. 다윈과 동시대 사람으로 열렬한 다윈의 지지자였던 토마스 헉슬리(Thomas Huxley)가 흑인과 백인이 같지 않다고 생각한 것도 그 바탕에는 우생학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Blackmore and Page 1989).

2000년 6월 26일 인간 유전자 정보(게놈)를 규명하기 위한 유전자 지도 초안이 미국과 영국에 의해 공개됐다. 게놈(genome)이란 유전자(gene)와 염색체(chromosome)의 합성어로 세포 핵 안에 들어 있는 유전정보의 총체라고 할 수 있으며, DNA는 이 정보의 실질적인 물질적인 토대이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 인간이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복제하여 남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바로 게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유전자 정보는 인간의 질병 뿐 아니라 인간 행동의 유전적 기초에 대한 연구 등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요즘 대학의 '환경철학'이나 '생태학' 수업 시간에 유전자 지도가 장차 인류에 도움을 줄 것인지, 해를 끼칠 것인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해보면 매년 응답자의 약 절반 이상이 '인류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답하고 있으며, '게놈프로젝트'가 가져올 구체적 성과에 관한 질문에는 난치병 정복, 신인류 탄생, 평균수명의 연장 등이 가능해져 인류의 미래에 공헌할 것으로 대답한다. 또 게놈프로젝트와 관련한 '맞춤 2세'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약 절반 정도가 긍정적으로 응답한다. 자기보다 큰 키, 날씬한 체격, 더 높은 지능지수 등을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한다. 특히 유전적 질병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기 위한 맞춤아기의 탄생에는 더욱 호의적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게놈주의자들은 그들의 연구가 인간 개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으나 앞으로 유전정보의 누출로 인해 우리는 더 통제 받는 사회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미 미국 중·대형 기업의 30% 정도가 직원들의 유전정보를 입수하고 있으며 이 중 7%는 그 정보를 고용과 승진의 자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전병에 걸릴 위험을 내세워 취업을 제한하거나 해고하는 사례가 잇따라 생기고 있으며 '유전자 불량자'는 보험에도 못 들 세상으로 치닫고 있다(조선일보 2000년 6월 29일). 이제 게놈 연구는 우수한 유전자만이 인위적으로 선택되는 사회로 우리를 내몰고 있다. 인간의 의도에 따라 인간의 손에 의해 '맞춤 인간'이 탄생될 수도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창조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자유선언인 것이다. 일부 게놈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앞으로 유전자 연구를 통해 인간의 수명이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므두셀라의 969세를 넘어 1200살까지 살 수 있다면 이 지구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생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세계인구는 매년 크게 증가하는 반면 각종 동·식물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계속 늘어난다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인구를 통제하고 싶어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생학은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인류진화의 정점에 아리안 민족이 있으며 유태인은 가장 열등한 민족으로 아리안 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열등한 민족은 도태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히틀러를 통해 우리는 우생학이 가져온 해악을 역사를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우생학이 다른 어떤 주의(-ism)보다 더 우리의 미래에 위협이 되는 것은 자본주의자에서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도자들이 이를 신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앤드류 카네기(Andrew Carnegie), 존 록펠러(John Rockefeller), 조셉 스탈린(Joseph Stalin), 히틀러(Adolf Hitler), 이들은 모두 우생학을 신봉한 자들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일반 대중들도 우생학에 대해 호의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들 주변에는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개량하는 우생학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적어도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위협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생학에 대해 위협성을 느끼기 시작할 때는 이미 너무 때가 늦었을지도 모른다.

## VII. 맺음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의 하나는 '지속 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이라는 말이다. 모든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끝없이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해마다 발표되는 경제성장률은 각 나라의 미래를 예측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교회 신도수의 증가와 대형화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목표인 것처럼 보인다. 생태학자들은 지구 자원의 대부분이 유한하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은 언젠가는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환경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환경문제, 예를 들면 인구문제, 환경오염, 생물의 멸종의 문제, 제한된 지구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위해 기독교인들은 어떤 환경윤리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기독교적 자연관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은 무(無)에서 유(有)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개념에서 시작한다(창 1:1). 노아의 심판 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만을 구원하시지 않고 모든 생물들도 구원하셨다. 또한 노아의 심판 후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도 노아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생물들과도 하셨다: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짐승에게니라”(창 9:10). 모든 생명은 창조세계의 일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롬 1:20). 생태학은 동물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요구 조건들을 일컬어 ‘생태적 지위(ecological niche)’라고 한다(Brum et al., 1994). 성경은 동물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보는 자를 의인(righteous man)이라고 부른다(잠 12:10). 그러므로 생물들이 고통받는 사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선한 청지기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세계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신다”(히 1:3), 하지만 창조세계가 우리를 통해 잘 관리되길 바라신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다”(시 8:6)고 쓰고 있다. 결국 현재 인류가 당면한 생물들의 대량 멸종위기를 포함한 창조세계의 위기에 대한 책임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다스리는 자는 곧 섬기는 자(servant)를 가리킨다. 자연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마음가짐은 아미쉬(Amish)의 속담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땅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서 그것을 빌려쓰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세대는 20~30 미터 미만의 지하수만을 사용하자’라는 캠페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지하 150~200미터의 깊이에 있는 지하수는 사용하지 말고 우리의 후손을 위해 남겨주자는 것이다.

피터 칼(Peter Kalm)은 “나는 창조주의 지혜와 축복을 사방에서 발견했다. 하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한탄하였다(Kalm, 1977). 우리나라의 새만금간척사업은 지금까지의 간척사업 중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개펄을 매립해서 농지를 만들어 이익을 남기겠다는 생각해서 시작한 새만금간척사업은 오늘날 가장 지혜롭지 못한 정책으로 꼽힌다. 새만금간척사업이 착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내외의 여러 연구들은 개펄의 가치가 농지의 가치보다 적어도 3~5배 이상 높다고 보고되었으며(Yoo, 1999a),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쌀이 남아도는 실정이 되어 버려 새만금간척사업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토지 변경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제는 간척사업의 절반이 진행된 상태여서 원상대로 되돌리기에는 시작 때보다 더 어려운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새만금간척사업이 완료되면 이곳에서 살던 도요와 물떼새 그리고 개펄에 의존해 사는 많은 생물들이 자취를 감출 것이다. 개펄에 의존해 살던 도요와 물떼새가 떠난 곳에는 겨울철에 농지에 떨어진 낱알을 먹기 위해 모여드는 오리들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객이 주인을 내쫓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더 이상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변경과 같이 자연환경을 송두리째 바꾸는 정책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의 창조성 회복에 관심을 보일 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창조성 회복도 가능할 것이고, 이 세계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는 온 천하 만물(all creation)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막 16:15),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네메시스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과 기쁨을 위해 만들어진 창조 세계의 회복은 바로 창조주의 기쁨이 된다.

앨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은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맹목적이고)이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Religion without science is blind; science without religion is lame)”라고 한 적이 있다. 이 말을 창조세계의 회복과 관련하여 기독교 세계관에 적용시켜본다면 다음과 같이 고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윤리를 다루지 않는 기독교적 세계관은 장님이요 절름발이다(Christian worldview without environmental ethics is blind and lame)>.

인용문헌

- Blackmore, V. and A. Page, *Evolution the great debate*, Oxford: Lion, 1989.
- Brum, G., M. Larry and G. Karp. *Biology: Exploring Life*, John Wiley & Sons, Inc., 1994.
- Callicott, J.B., Non-anthropocentric value of theory and environmental ethics,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21:299-309, 1984.
- Callicott, J.B., On the intrinsic value of nonhuman species, *In: The Preservation of species*(ed. B.G. Norton), pp. 138-172.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 Darwin, C., *Origin of Species*, London: John Murray, 1859.
- Kalm, P., *Travels into North America*, quoted *In: American Environmental History* (Joseph M. Petulla), San Francisco: Boyd and Fraser, 1977.
- Levin, N.D. Evolution and Extinction, *BioScience* 39:38, 1989.
- Mason, S.F., *A History of the Sciences*, New York: Collier Books, 1962. <과학의 역사, 박성래 역 (서울: 까치, 1994)>
- Porritt, J., *Seeing Green*, Oxford: Blackwell, 1986.
- Schaeffer, F., *Pollution and the Death of Man: The Christian View of Ecology*, Tyndale House, 1973.
- Simpson, S., *Guide to the Environment*, London: Times Books, 1990.
- UNEP, *The World Environment 1972-1992*, Chapman and Hall, 1992.
- Van Dyke, F., D.C. Mahan, J.K. Sheldon, R.H. Brand, *Redeeming Creation: The Biblical Basis for Environmental Stewardship*, IVP, 1996. <환경문제와 성경적 원리, 유정철 역(서울: IVP, 1999)>.
- White Jr., L.,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155:1203-1207, 1967.
- Windelband, W., *An Introduction to Philosophy*, London: T. Fisher Unwin, 1921.
- Yoo, J.C., Wetland: Noah's Ark for Birds of Korea, *The University Life*, Kyung Hee University, April 1, 1999a.
- Yoo, J.C., Current status of birds on the west coast and Cholwon basin of Korea. *Proceedings of IUCN/WCPA-EA-3 Seoul Conference*. pp. 166-183. 1999b.
- 유정철, 지속가능한 사회와 생태학, *통합연구* vol. 8, 27·28:109-126, 1995.
- 유정철, 환경윤리와 생태학, '96 통합연구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pp. 84-90, 1996a.
- 유정철, 생태계보전을 위한 새로운 환경인식의 필요성, *미스바*, pp. 173-180., 고신대학교, 1996b.
- 유정철, 신학과 자연과학, 『신학함의 첫걸음』, 장로회신학대학 역음, pp. 355-379,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2.

유정철

영국 University of Oxford에서 생태학으로 박사학위 취득.

(현)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경희대학교 한국조류연구소장,

한국동물학회 이사, 한국생태학회이사, 한국조류학회 이사, 대한의생명학회 이사.

(NGO)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대표.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 전문위원.

(저서) 기독교와 과학(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2), 신학함의 첫걸음(예영커뮤니케이션 2002) 외 다수